

3/17(목) 삼상 1-3장 상승과 쇠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끝 무렵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땅을 정복해가던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삿1:34-36).

연합 지파 체제는 붕괴되었고 흩어진 부족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향곡선을 그리며 쇠퇴합니다.

초반의 <한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닮았습니다.

간절한 열망과 몸부림에도 기대하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통, 주변의 공격 속에서도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입어 <사무엘>을 임태합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영적 채널마저 끊겨 있었음을 뜻합니다(3:1).

엘리와 그의 집안 이야기는 영적, 도덕적, 성적 타락상이

전방위적으로 침투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2:12-17, 22-25, 삿17-21장 참조).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로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끌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2:7)”

사무엘상에는 상승과 쇠퇴가 여러 번 대조됩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은 쇠퇴하고 사무엘은 상승합니다.

불순종한 사울왕은 점점 쇠퇴하고 다윗은 점점 상승합니다.

하향과 쇠퇴 일색이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시대, 상승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집안)와 사무엘의 대조를 살피며 통독해 보십시오.

나의 영성과 일상은 상승곡선입니까, 하향곡선입니까?

❶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 받고 있습니까? (2:30)

❷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있습니까? (2:35)